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권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상욱,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충남도청이 1896년 조선시대의 건도 이래 공주-대진시대를 거쳐서 읍초에 다시 충청남도로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 각종 대체를 통해서 “환황해권의 중심지”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환황해권이 갖는 의미와 해석은 접히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국토계획상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축이었던 경부축에서 벗어나 서해안축으로 이동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서해안시대, 환황해권시대, 크기는 전세계 경제를 이끄는 아시아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남도의 비전을 밝힘으로서 그 역할과 입장정리를 요구받고 있다.

국가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서해안시대의 선계를 예견하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이다. 서해안시대는 적어도 1980년대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용어인 것이다. 서해안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충청남도는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당시에는 도청이 정부발전축상의 대전에 위치하였고, 서해안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해안권의 특색있는 방향제시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도청이전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담론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서해안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나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내포시대를 맞이한 충청남도가 환황해권·서해안권시대에 따른 주변국·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만의 특색있는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대응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적 차원의 서해안권 여건 및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서 서해안권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8개 구·군), 경기도(6개 시), 충청남도(7개 시·군), 전라북도(4개 시·군)를 말한다.¹⁾ 서해안권은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 3억명의 배후시장을 보유하는 등 입지특성상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

1)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서해안권은 중국의 산업화·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세계의 3대 경제권²⁾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경 대도시권, 서울 대도시권, 동경 대도시권이 융합된 동북아 베세토(BeSeTo)³⁾ 대도시권은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특히, 중국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한·중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계획차원에서 동북아 경제권을 선도할 성장거점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경제권 계획⁴⁾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권의 잠재력을 요악하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해안권의 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 간의 연계 시너지효과로 글로벌 신산업 집적거점으로 성장하여 21세기 개방형 국토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항만·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첨단산업 집적기능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이 미국중심에서 환황해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산업 경제네트워크의 시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경제 및 환황해권 수출 거점지역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선자원이 풍부한 리아스식해안으로 전국의 54%에 달하는 대규모 갯벌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 향토문화, 계절별 특산물, 향토음식 등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의 추진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농수산 식품원료와 반효 가공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식품을 육성시키기 위한 여건도 충분하다.

최근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권의 역할을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허브,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녹색성장의 교두보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견인차, 사람과 문화, 지식과 정보 및 자본의 융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비전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목표를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추진전략을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임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인프라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권 주요 내용

충청남도 서해안권(7개 시·군)⁵⁾의 인구는 충청남도의 90.3만명으로 충청남도의 44.7%, GRDP는 44조 8,551억원으로 충청남도의 58.7%, 제조업체수는 1,434개소로 충청남도의 43.5%를 차지하는 곳이고, 향

2) 세계의 3대 경제권은 동북아경제권, EU, NAFTA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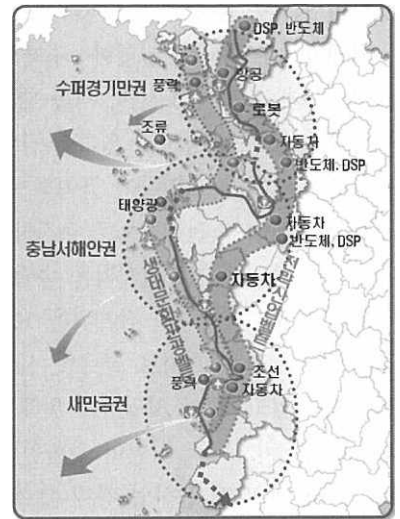
3) 베세토(BESETO)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경제·문화권을 말하며, 베이징(Beijing)의 BC, 서울(Seoul)의 SF, 도쿄(Tokyo)의 TO를 따온 것을 말한다.

4) 중국은 환황해권을 중국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환발해경제권, 삼강 델타 경제권, 해협 서해인 경제권, 주강 델타 경제권, 천북부 연안경제권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1축 1극형 국토계획에서 다축형으로 국토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만물동량과 연안습지는 각각 104,948천RT, 358.8km²를 모두 수행하는 지역이다.⁵⁾

충청남도의 서해안권은 수도권·대전권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택·당진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식교류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중국교역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핵도시구조(연담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의 심화, 관광자원은 많으나 이를 연계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라는 측면에서의 미흡, 고급인력의 정착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들어 대전 등 과화벨트 조성이 가시화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이 향후 가능하다는 전망과, 새정부의 지방중추도시권 발전정책의 추진 등은 서해안권의 발전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국가계획인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대응하고, 충청남도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2030년의 미래상은 글로벌 수도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순환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첨단녹색산업 발굴과 소프트 파워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서해안권 특성화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이촌 체험 및 생태관광확산을 위한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그리고 공간구조적 측면에서는 서해안권 지역과 이를 지원하는 내포신도시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군별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 1〉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공간발전 구상

〈표 1〉 충청남도 서해안권의 발전 기능

구분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국가 국제 기능	해양관광	첨단산업	기간산업	물류형민	생태산업	첨단산업	국제관광
광역기능	첨단산업	KTX역세권	물류형만	기간산업	생태관광	광역행성	녹색산업

계획과제 및 발전방향

현재까지 서해안권 중심의 계획이나 구상은 내용적 측면에서 서해안에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

5) 서해안권에 속하는 7개 시·군은 북쪽부터 아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을 말한다

6) 충남 서해안권 발전방안 연구승(2013), 충남발전연구원 을 요약 정리

업·경제, 관광부문에 대한 기능만이 부각되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방향설정과 더불어 서해안의 사원(畝園)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마련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달리 말하면, 대상이 내륙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해안(해양)과 인안(도시)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서해안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중국의 성장, 기후변화의 적응(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담보, 사회통합성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서해안이 갖는 위상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서해안권이 갖는 위상이다. 서해안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선진외국 문물전래지인 내포와 국제해상왕국으로서의 백제를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의 국제관문(Global 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충청남도는 크게 치명산맥을 기준으로 남측은 금상유역 중심의 삼국시대 백제문화, 조선시대 기호유교문화가 형성되었던 지역이고, 자령산맥 이북은 내포문화가 형성되었던 지역이다.⁷⁾ 이 내포문화-통상적으로 내포문화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현재의 서해안권과 일치한다. 내포문화는 과거 해안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보구를 중심으로 중국 등의 외부 선진문물이 유입되고, 내륙의 농경문화와 결합되면서 고유한 서민문화·층의(절의)문화로 형성한 지역으로 개방형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지난 반세기동안 경부축 중심의 폐쇄적 국토구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해양개방축을 형성하는데, 서해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내포문화의 본질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중국의 개방형 체제를 형성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적의 거점인 내포신도시가 충남 시북부발전지역의 효과를 낙후된 남부지역에 전달해주는 혁신거점, 균형발전의 중심지역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토공간상 내륙중심으로 형성된 경부축,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와 서해안축을 매개하는 역할을 내포신도시가 담당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충청남도 전체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시적 측면의 위상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서해안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존 방향의 확대·보완 및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해운·항만 여건변화에 대응한 전략적인 항만기능의 확충과 복합해양관광 공간의 창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형성되어온 개발계획에 대한 지속·확대이다. 거시적 여건변화 측면에서 동북아의 선박대형화에 따른 기항지 축소, 동북아 컨테이너 불동량 증가, GTO점유율 확대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의 항만간 경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항만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⁹⁾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배후단지 등 지원시설의 집중,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복합 해양관광공간의 창출이다.

7) 충청남도의 백제문화와 내포문화의 특성은 차이가 있다. 백제문화는 왕족문화, 귀족문화로 특징지워지며, 내포문화는 서민문화, 층의(절의)문화로 특징지워진다.

8) 일본, 한국,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에서 3개국의 물동량은 전세계 물동량의 37.9%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북아 지역의 항만물동량은 1999-2010년 동안 연평균 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가활동의 변화는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국가에서는 자동차, 쇼핑 등의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고,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서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요트 등의 취미생활이 일반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여가시간 활용의 변화와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은 수면으로 보며 들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생활패턴을 보인다.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등과 연계하여 국제 크루즈를 통한 국내입항 이객수의 지속적인 증가¹⁰⁾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전방위적인 관광객 유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향만은 국가산업 고도화, 소득수준 상승 등으로 물류 흐름상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전통적 항만기능의 다양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화 클러스터를 포함한 친환경·고품질 워터프론트 항만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항만클러스터, 물류 클러스터 등에서 탈피한 Port Business Valley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항만개발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항만재개발에 포함된 내친항,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에 포함된 석문, 오천, 홍원, 보령 항¹¹⁾에 대한 잠재력 검토와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수렴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해양은 아직까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영역이자 미개척지이다. 해양생태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해양생태산업¹²⁾은 생소한 분야로 남아있고, 해외의 생태산업은 EU·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고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을 설정한 이후 해양생태세복원, 바다숲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서 해양생태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발달하지 않고 있다.¹³⁾ 우리나라 연안해역 생태계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3%수준인 32조8억원-33조8,662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녹색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생태산업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가능성도 큰 블루오션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응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발전이 필요하고, 해양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요구된다. 기상연구소의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1-2100

9) 대형컨테이너 우주 개발 환경 경쟁력 강화, 부두 위주의 항만개발·운영·배후수송망·배후단지 등 지원시설 집중, 소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개발·해양신도시 등 적극적 재개발 추진, 제한적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고효율 탄소질감형 항만, 항만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저효율 에너지 소비형 항만 복합 해양관광공간 창출로 요약된다.

10) 크루즈 전용부두 등 국내 항만내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2010년 크루즈 여객수는 17만5천명에서 2020년 28만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레저부두 수요는 2010년 7,232척에서 2019년에는 1만7,435척으로 증가 전망되고 있다.

11)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상 보령·당진이 포함되었으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0년 현재 기개발·개발중인 마리나는 기개발 11개소, 개발중 5개소로 총 16개소로 1,304척(수용가능척수: 1,028)이다.

12) 해양생태산업은 광의의 관점과 협의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광의의 관점에서는 생태산업 개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유럽생태산업/미국 EBI개념을 해양환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산업, 해양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보광적 환경산업, 오염물질 유입, 오염 물질 제거, 자원재활용, 해양환경·생태모니터링, 환경영향조사, 생태계 환경복원을 주 내용으로 해역뿐만 아니라 연안구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관점은 해양생태계 및 공간으로 한정하여 해양생태계법 제정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한정된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공간에서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충진한 목적으로 해양생태계 및 그 구성요소인 해양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3) EU의 생태산업 매출액은 2008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3,190억유로이며, 전체 매출액 중 오염관리 부문이 64%, 자원관리 부문이 36%를 차지하고, 미국의 생태산업 시장은 1970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 3,1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5,0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2009년 현재 44조64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환경사업체는 총 31,728개소, 환경분야 종사자는 195,587명이다.

년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며, 강수량은 연간 변동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예측한다¹⁴⁾, 이에 따라 해양환경과 어업환경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해안은 최근 41년간(1968-2009) 약 1.31℃¹⁵⁾상승하였으며, 서해는 1.29℃의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해수면 상승은 지구평균 3.1±.4mm/yr를 초과(제주해역 5.1mm/yr)하고 있으며, 연안은 지리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으로 전국 평균의 2.2배에 달하고, 연안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 방조제, 어항, 직립호안 등의 인공구조물 건설, 하구둑 조성에 따른 모래공급원 감소, 연안표사제의 교란 등 연안의 침식피해가 증가¹⁶⁾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안선을 단순한 보호차원에서 연안의 질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호안·제방·해안도로 등의 인공화된 해안선의 복원을 통해 연안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¹⁷⁾(2008-2017, 해양수산부)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주요내용은 496,535백만원 투입 계획이었고, 최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대한 믿고리즘을 다시 수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연안습지 및 하구 관리체제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는 금상호, 부사지구, 홍보지구, 서산AB지구, 대호지구 등이 있는데,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안과 내륙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충청남도의 해안과 내륙을 연결함으로써 개발의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템즈강 하구관리계획(Thames Estuary 2100: TE2100)¹⁸⁾, 네덜란드 로테르담 Maeslantkering¹⁹⁾, 이탈리아 베니스 모세 프로젝트²⁰⁾ 등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수변도시 개발-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4) 한반도 기온과 강수량 변화예측

구분	2020년	2050년	2080년
온도증가()	+1.5	+3.0	+5.0
강수량변화(%)	+5.0	+7.0	+15.0
해수면 변화	2100년 50cm이상 상승		

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여 2100년에 농도가 820ppm이 되는 것을 가정
 자료 : 김창길 외(2009),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식량과학원

- 15) 이는 전세계 평균 표층수온 상승률인 100년간 0.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 16) 연안정비 수요중 연안침식대응사업이 70%를 차지한다.
- 1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충청남도의 계획내용은 태안 선두리 생태계보존 구역관리(05-), 연안습지 생태계 이용방안, 하구 관리체제 구축, 해양생물 종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실시, 전국 바닷가 실태조사, 무인도서 종합적 관리, 연안정비사업 등이다
- 18) 영국은 수해방지를 위해 '3단계 홍수위험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차원의 광역·도시·개발개발단위의 홍수위험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책을 주로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입지, 토지이용, 건축물, 내피체계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조되고 있다. 템즈강은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위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TE2100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적응 계획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미래의 자산을 등을 고려한 장기계획이다.
- 19) 네덜란드 해양전문가들은 2100년에 약 65-130cm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적응전략을 수립하였고, 동시에 회물이나, 여객운반, 경제개발 목적의 접근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다.
- 20) 1966년 침수피해로 해마디 물에 잠기는 베니스를 보호하고, 최근 해일발생에 따른 피해 급증에 대비하고자 총 78개의 거대한 수문을 바다속에 건설하여 해일방지를 위한 해저담 건설계획으로 해수면이 1.1m에 이르면 자동으로 10층높이의 댐이 세워지는 계획이다.

닛재, 대중국 수산업 수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수산업도 어획량, 어종 분포, 어종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대표적으로 오징어의 경우 기존의 주어장인 동해안에서 최근에는 해수온 변화로 서해안 지역의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제주도, 남해안 인근에서 참다랑어가 어획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²¹⁾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도 해수온 변화로 명태, 도루묵 등 냉수성 어종의 생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오징어, 멸치, 고등어,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업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²²⁾·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중국 수산물 수출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수산물 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대국이지만,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및 도시화 요인에 따른 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부유계층의 양산과 연간 소득의 증가, 중국의 수산물 생산위기에 따른 수입요인이 적용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전략품목으로는²³⁾ 삼치, 갑오징어, 왕게 등이 있으며, 수출품도 중·고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수출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조성사업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국제추세와 동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어패류의 단백질 공급량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수산물은 맛과 영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고품질 소비성향에 잘 부합되는 식품으로 향후 그 증가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산식품은 원료인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제조·보관·유통·조리 및 식품 서비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지적되는 문제점²⁴⁾도 다양하다. 지역별로 풍부한 해양수산식품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은 상

21) 국립수산물연구원(2007),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동 지표 탐색 및 모니터링 지침서.

22)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산업의 관련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 어선어업 :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어업지원보호법, 낚시어선업법 등
- 양식어업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 특별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 원양어업 :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국제수산물기구협약, 유엔해양법 등
- 기후변화대응 : 녹색성장기본법, 기타-해양수산물전기분법 등

23)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국 : 삼치, 갑오징어, 왕게, 냉동 굴, 횡다랑어, 명태, 해삼, 청패각(전복), 캐비아 대용물, 해조류 등
- 중·고소득층 대상(라오닝성) : 진락품목 : 갯살있는 냉동새우, 냉동 고등어, 냉동 횡다랑어, 냉동 게, 냉동 청어 / 확대품목 : 갑오징어, 명태, 해삼, 삼치, 병어
- 상하이시 : 전략품목 : 냉동맹장어, 오징어, 넉치류(넉치, 가자미, 시대기 제외), 냉동어류(삼치, 복어, 달고기, 임연수어, 볼락, 새꼬리민대, 아귀, 멧장어, 홍어, 얼피쉬, 민어, 가오리, 까나리, 이빨고기, 기타 냉동어류 농임) / 송어
- 상하이시(고소득층 대상) : 고소득층 소비 품목 : 바나가제, 대하, 청어, 참치, 전복, 연어(송어) 수출하지 않고 있음 / 바다가제, 대하, 닭새우, 청어, 전복, 횡다랑어, 눈다랑어, 송어

황에서 저점단지의 조성사업도 비추진중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수산식품 기지단지 조성사업²⁴⁾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선군은 단순한 수산업에 대한 활성화로는 그 목적과 명분이 약하므로, 식량문제²⁵⁾적 측면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갯벌을 활용한 어업의 확대발전이 요구된다.

서해안의 대표 자연자원은 갯벌이다. 갯벌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갯벌어업으로 대표된다. 중앙정부에서는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갯벌어장 복원 및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모니터링, R&D 투자 확대, 갯벌참굴, 해삼 등의 전략품목 시범사업 추진, 갯벌어업 산업화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투자²⁶⁾하고 있다. 이중 충청남도에서는 갯벌참굴의 경우, 태안, 시천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종패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양식어장 개발 및 사본 유치 확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일본, 홍콩, 중국 및 미국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전략적으로 확대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삼의 경우 태안을 중심으로 그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²⁷⁾하고 있는 바, 생산-가공-유통-수출의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일반 갯벌어장과 전략수출단지(양식업)로 구분하여 생산을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바지락, 백합, 꼬막, 가무락, 갯지렁이, 낙시, 합초, 꽃게, 새우 등에 대해서 생산-가공-유통-수출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양분화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4) 수산식품산업의 공정별 문제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급측면 : 국내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약화
- 가공측면 : 사업체의 영세성, 부가가치 창출능력 저하, 구매형태 다양화에 대응 능력 부족,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의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 미흡
- 유통측면 : 유통 물류기반 미비, 서운유통체계 미비로 상품성 및 위생문제 제기, 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성 미흡,산지지정 유통 가능 약화 및 소비지 대형 소매업의 위상 강화
- 외식업측면 : 웰빙식품으로서 수산식품 수요 급증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응 미흡, 수산물 식재료가 대부분 수입산으로 조달, 산지와외의 연계성 저하
- 수산전통식품업 측면 : 국산원료의 안정적 조달 어려움, HACCP시설도입 어려움

25) 대상은 이업인, 영이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어촌계, 어업인주식회사, 수협 및 지자체이고, 우리나라에는 부산-수산식품가공업 산학관연구센터, 부산-수산물 종합유통 물류기반(시설, 목포-고기능 수산식품지원센터, 여수-수산물 종합센터, 영광-염산 황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포항-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고창-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등이 있다.

26) 식량문제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향후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는 시급히 해소한 국가안보차원에서 인식 되었으나, 현재에는 인간안보라는 인류행복의 차원에서 식량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확보와 더불어 식량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더욱이 식량안보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식량의 안정된 공급확보가 단순히 수치로 계산된 물량적 공급확보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1)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되고 소비는 국제체제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인간안보의 의미를 기아, 질병, 기후행위 등 만능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가정, 직장, 사회공동체속에서 일상생활양식이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 중 충분한 식량안보와 기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식량 안보(food security)가 포함되어 있다.

27) 갯벌어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35억원을 산정하고, 농특회계, 광특회계, 수발기금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8) 우리나라 해삼생산량은 2002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7년 2,936톤을 기록한 후 2009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였으며, 해삼 수출액은 2000년에는 302천 달러였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13,086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은 해삼유통이 바늘어업 생산 수직상 보다리상 수출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서해안 해역을 돌면서 생산물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집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전략과 대응방안**

중앙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²⁹⁾과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³⁰⁾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있다. 충남에 분포하는 시설은 단순 관람형이며, 서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특색있는 시설이 요구된다. 서해안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비, 어촌 전통문화를 반영한 문화관이 필요하다. 어촌전통체험마을은 완도, 영덕, 거제, 안산, 삼척, 제주, 부산에 민속관이 있으며, 갯벌 생태계를 반영한 해양문화시설도 충청남도에는 없지만, 순천만 자연생태관, 증도갯벌생태전시관, 강화갯벌센터, 무안생태갯벌센터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테마 박물관은 소금, 동대, 독도, 조가비 아트 등이 있고, 국내의 유일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박물관은 소금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독도박물관, 장생포고래박물관, 동해 고래화석박물관, 세계조가비박물관 등이 있으나, 아직 충청남도에는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이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사) 한국정치사상학회(2012), 지속가능형 발전 목표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2011), 해양문화시설 중장기 확충방안.
- 국토해양부(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국토해양부(2011),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연구,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정.
- 국토해양부(201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2012), 해양생태산업체계 구축방안.
- 김창길 외(2009),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식량과학원.
- 녹색성장위원회(2011), 기후변화 적응 랜즈마크 사업 연구.
- 녹색성장위원회(2012), 신재생에너지 내규모 수요창출 연구방안.
- 농림수산식품부(2009), 수산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0), 수산물 신지위판매도 개선을 위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0),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1),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업의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2),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
- 충남발전연구원(2013), 충남 서해안권 발전방안 워크숍.
- 해양수산부(2002), 해양수산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연구.
- 해양수산부(2007),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 연구.
- 해양수산부(2007), 대중국 수산물 수출확대방안(Ⅰ).
- 해양수산부(2007),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08-2017).

29)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3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문화 및 여시의 정체성 발견 활동 증대에 대응하여 해양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의 홍보를 위한 해양교육 인프라의 보급·확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이며, 해양문화시설 관련법·제도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과학관육성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이 있다. 충청남도에 해양문화시설로는 당진 삼교호 해양테마과학교관(시립, 당진해양관광공사, 2010), 고남대총박물관(국립, 태안군, 2005), 서천해양박물관(시립, 2002),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토교통부, 공사중)의 4개 소가 있다.